

CEO Information

2007.4.25 (제601호)

한미 FTA와 기업의 기회활용

목차

요약

I. 한미 FTA 체결의 의미와 비준 전망

II. 한미 FTA에 따른 주요 업종별 영향

III. 기업의 대응 : 새로운 글로벌 전략

작성 : 광수종 수석연구원(3780-8247)
soojong.kwak@samsung.com
복득규, 강성욱, 한창수, 민병석
감수 : 김경원 연구위원(3780-8040)
alexkim@samsung.com

《 요약 》

한미 FTA가 협상 개시 1년 2개월 만인 지난 4월 2일 최종 타결되었다. 한국이 능동적으로 추진한 이번 한미 FTA 체결은 '제2의 개항'이라 불릴 정도로 통상적 측면 이상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가진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기회를 잘만 활용하면 한국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 모두 FTA 체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비준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강력한 의지와 한미 FTA의 전략적 필요성, 의원들의 한미 FTA에 대한 선호 등을 감안할 때, 한미 FTA는 빠르면 2007년에 늦어도 2008년 내에는 비준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가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은 연차별 관세 양허안 등에 따라 상이하다. 즉, 현재 관세율이 높고,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제고되는 부문(자동차, 섬유), 관세철폐 효과보다는 산업간 상호 보완적 구조로 인해 향후 협력증대가 큰 부문(기계), 비관세 장벽이 낮아져 업종내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부문(제약), 그리고 실질적인 개방효과는 없지만 대미진출이 요구되는 부문(방송·통신)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미 FTA가 업종별로 미치는 파급효과는 섬유, 자동차, 제약, 기계, 방송·통신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미 FTA를 이끌고 갈 실질적인 주역은 기업이다. 차체에 기업은 한미 FTA를 활용하여 선·후발자 사이의 '경쟁력 샌드위치'에 놓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국기업은 한미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5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비'보다 '공격' 위주의 다섯 가지 대응전략을 마련해 미국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시장을 한국, 중국에 이은 '제3의 내수시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시장의 내수화는 제품시장에 국한된 중국과 달리 군사, 외교, 경제, 기술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지식, 아이디어 등에서 세계 최대인 지식시장에 직접 접목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둘째, 한미간 게임의 룰인 무역 및 투자관련 법 등에서 글로벌 경영체질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M&A나 전략적 제휴 등 향후 5년간 기업·업종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미국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도 낮으므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 브랜드 이미지와 수요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한미 FTA를 미래 수종사업 발굴의 계기로 삼고, 이를 위해 미국의 우수한 기술과 인재 등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미 FTA를 지렛대로 삼아 한미 양국은 물론 동북아 역내 인적교류를 확대할 경우 한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비즈니스 센터'로 도약할 수 있다.

I. 한미 FTA 체결의 의미와 비준 전망

능동적 개방화로 경제 재도약의 계기 마련

- 한미 FTA 체결은 양국간 관세철폐 및 교역량 증가라는 통상적 측면 이상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내포
 - 과거에도 한국은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수동적 자세를 견지
 - 특히 1980년대 말 이전에는 국내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개방화 정책을 제한
 - 한국이 능동적으로 추진한 이번 한미 FTA는 '제2의 개항(開港)'이라 불릴 정도로 대대적인 사건
 - 일본과의 강제적인 불평등 조약을 맺었던 19세기말 조선 말기의 개항은 근대적 서구 문물의 수용이라는 본래 의미가 크게 약화
 -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10월 1일 체결)에 이은 '경제동맹' 체결로 한미 양국간 심리적 거리가 단축되고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교류가 확산되는 기폭제로 작용할 듯
- 한미 FTA에 따른 기회를 잘만 활용하면 한국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과거 전통적인 한국의 수출시장이던 미국이 또 다른 내수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활용
 - 미국의 내수시장 규모는 약 14조달러로 한국의 16배(2006년 경상가격 기준)
 -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할 시점

- 한중일 3국의 FTA, FTAAP¹⁾ 등 향후 예상되는 지역간 무역협상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가능
- 미국과 아시아 각국의 경제를 연결하는 가교국가(Bridge Country)로 성장할 수 있는 위치

한미 FTA 비준은 빠르면 2007년 중 이루어질 전망

- 한미 FTA는 의회 심의 등 일련의 비준 절차를 거쳐 양국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발효
 - 한미 양국은 체결안에 근거하여 협정문을 작성하고, 각국의 국회(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협정문에 각국 정상이 서명
 - 한미 양국의 국회(의회)는 협정문에 대해 각각 심의절차를 거쳐 비준 여부를 결정²⁾
 - 한미 FTA는 국회(의회)의 비준 동의 후 양국 정상이 최종 협정문에 서명·공표하면 즉시 발효
- 한미 양국 모두 FTA 체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비준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
 - 한국의 경우, 피해업종 종사자들과 노조,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고려해 의원들도 입장표명에 신중
 -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도 한미 FTA 타결 직후 '실망적'이라는 반응
 -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쇠고기 시장과 자동차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 또는 본회의 표결시 반대한다는 입장³⁾

¹⁾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의 약자로 APEC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의미

²⁾ 한국은 본회의에서 최종협정문에 대한 비준 동의를 표결. 미국의 경우, 무역대표부가 협정문을 '이행법안(Implementation Law)'으로 편집해 의회에 제출하면, 90일 이내 이행법안에 대해 하원, 상원 순으로 표결

- 미국 산별노조(AFL-CIO)는 한미 자동차 무역의 불균형, 역외가공 인정, 핵심 노동기준의 미반영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 표명

□ 그러나 한미 FTA는 빠르면 2007년에 늦어도 2008년말 안에는 비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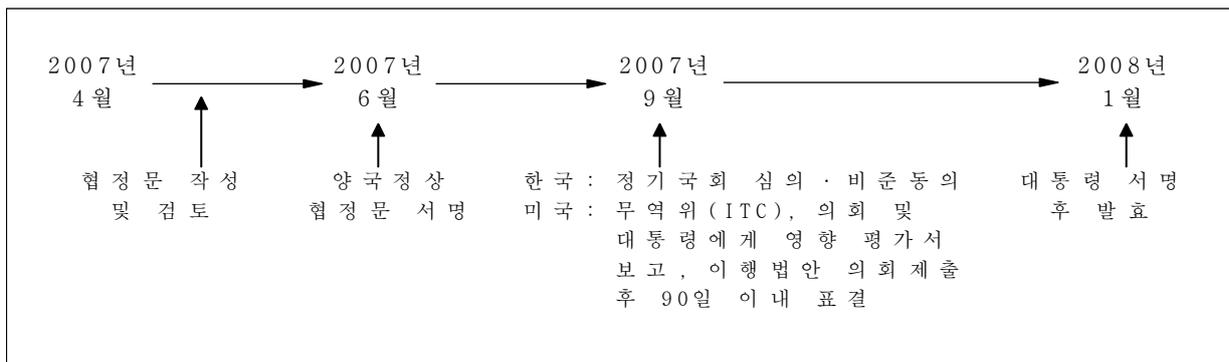
-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및 한미 FTA의 전략적 필요성 등으로 연내 비준 동의를 이루어질 가능성은 최소 55%에서 최대 70%
 - 단, 비준 동의안에 대한 처리 기한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준 동의가 2008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한미 FTA의 비준 동의 가능성

- ▷ 현재 총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비준 동의에 필요한 표결 수는 149명. 지난 4월 2일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 결과(찬성 210표)를 향후 FTA 비준 동의안 표결의 대리(proxy) 변수로 볼 경우, 연내 비준 동의 가능성은 70%.
- ▷ 또한 일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찬성 입장을 표명한 의원(88명~106명) 수에 유보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수(112명~117명)의 50%를 포함할 경우 비준 동의가 이루어질 확률은 55% 수준

- 미국의 경우, 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07년에 비준을 동의하거나 거부할 가능성
 - 일부 품목의 개방 수준에 대한 불만은 있으나, 재계의 전반적 지지와 비준 거부시 예상되는 부정적 파급효과 등으로 비준 가능성이 높은 편

한미 양국간 국회(의회)의 연내 비준 동의 절차(예상)



³⁾ 특히 최근 민주당은 노동 및 환경기준을 한미 FTA 협정문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함

II. 한미 FTA에 따른 주요 업종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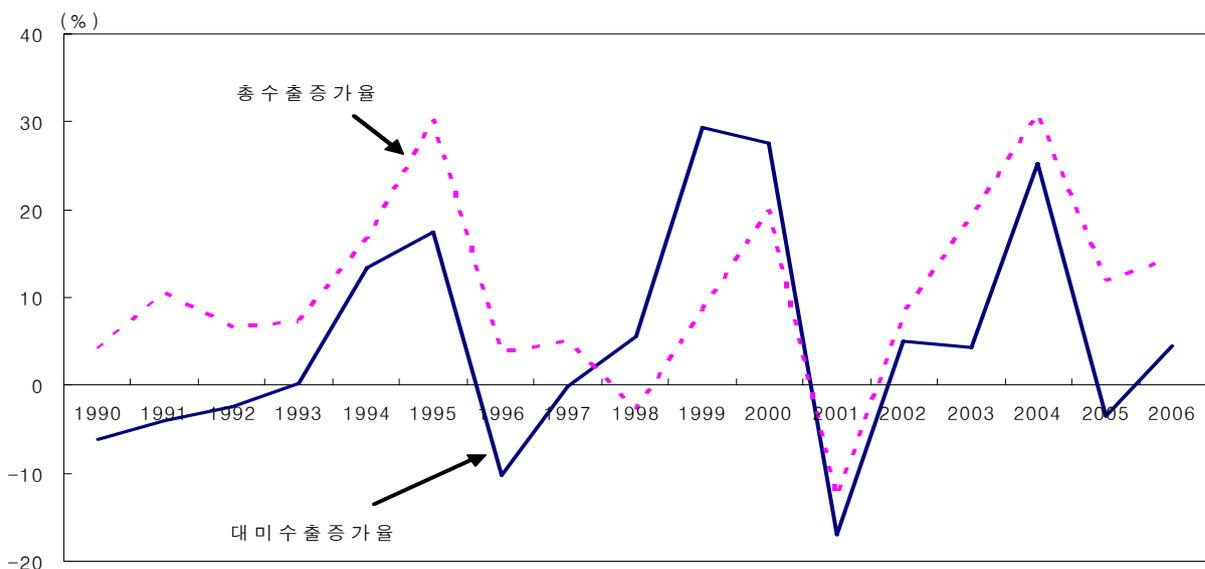
1. 대미수출 경쟁력 회복의 계기

비록 대미수출이 부진하나,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

□ 과거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던 미국은 2004년 이후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주면서 제 2~3의 수출시장으로 위상이 하락

- 2006년 대미수출 증가율은 4.5%로 2001년 이후 6년 연속 한국 총수출 증가율을 하회(2006년 총수출 증가율 14.4%)
 - 이에 따라 한국의 미국수입시장의 점유율도 1995년 3.3%에서 2006년 2.5%로 감소 (중국 6.1% → 15.2%)
- 자동차, 반도체 등 일부 제품은 선전하였으나, 섬유제품 등 대다수 제품의 경쟁력 저하로 수출이 매우 부진했던 탓
 - 섬유제품의 대미수출 증가율(%): -18.1(2005년) → -14.3(2006년)

총수출 증가율 대비 대미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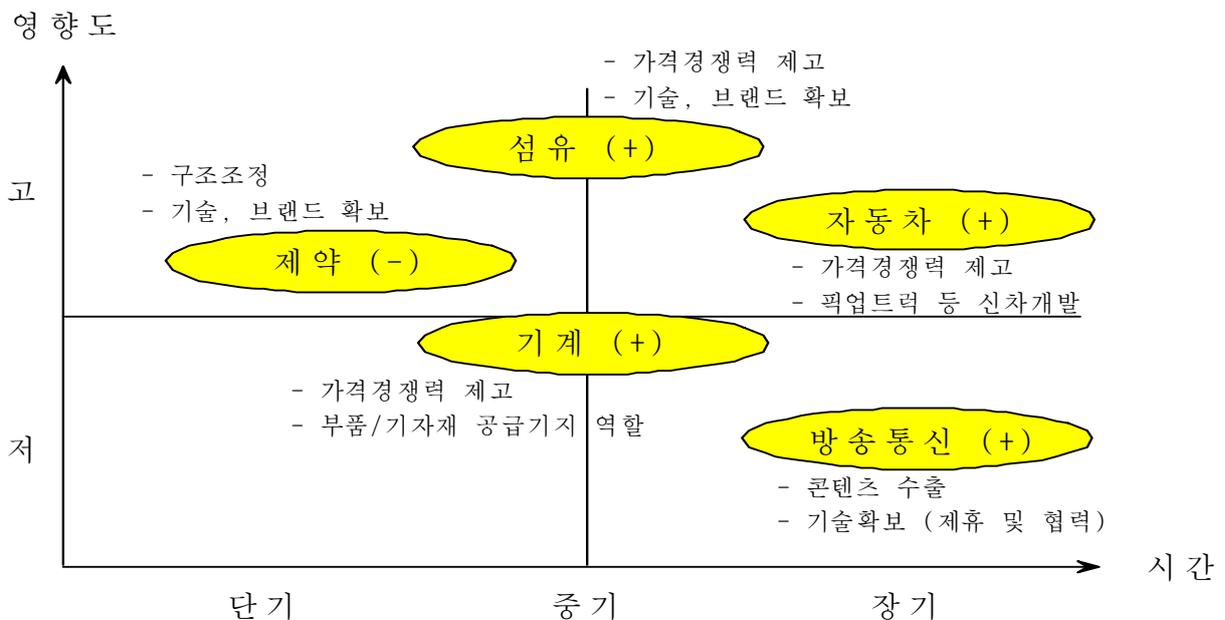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게 중요한 시장이고, 이번 한미 FTA 타결로 사업기회가 늘어나는 업종이 다수

- 대미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자동차(MTI 3단위 기준⁴⁾)를 비롯해 그동안 부진했던 섬유류 등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전망
 - 특히 자동차의 경우 픽업트럭 등 신차개발의 기회가 확대
- 한미 상호간에 기술보완 가능성이 높은 기계부문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기업의 부품 및 기자재 공급기지 역할 수행
 - 미국의 수요가 큰 가공공작기계의 가격경쟁력도 제고
- 방송·통신의 경우 디지털 기술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콘텐츠 수출과 기술제휴 기회가 확대될 전망
- 제약은 한미 FTA의 발효로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한미 FTA에 따른 주요 업종별 영향도



주: (+)는 한미 FTA의 영향이 긍정적, (-)는 부정적, (0)는 중립적

⁴⁾ MTI 코드는 옛 상공부에서 편의상 통계분류를 하기 위하여 부여한 코드로 대분류인 1단위부터 시작해 2단위, 3단위, 4단위, 6단위로 세분

2. 주요 업종별 파급효과

① 자동차 : 신제품 개발 확대 및 브랜드력 제고

□ 자동차는 관세뿐만 아니라 세제와 환경 및 안전기준 등에 합의

- 한국은 친환경차(10년 유예)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
- 미국은 3000cc 미만 승용차와 부품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단계적으로 철폐

한미 FTA의 자동차부문 관세 양허안

구분	즉시 철폐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한국	승용차·부품 등 116 개 품목(8%)	-	-	친환경차 (8%)
미국	3000cc 이하 승용차 · 부품 등 18개 품목 (0~2.5%)	3000cc 초과 승용차 등 16개 품목 (0~2.5%)	타이어 (4%)	트럭 (픽업 포함) (25%)

주: () 안의 수치는 현행 관세

자료: 외교통상부

- 한국은 또한 특소세와 자동차세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자동차 원산지규정, 안전·환경기준, 분쟁해결절차 및 표준협력에 대해서도 합의

한미 FTA에 따른 한국의 자동차세제 개편

차종		경차 (800cc 이하)	소형차		중형차 (~2000cc)	대형차 (2000cc 초과)
			~1000cc	~1600cc		
특소세	현행	면제	5%			10%
	개편	면제		5%		8% (3년 후 5%)
자동차세 (cc당)	현행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개편	80원		140원	200원	

자료: 외교통상부

□ 대미수출은 확대되지만, 국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 미국의 관세철폐로 한국산 자동차에 평균 300~400달러의 가격인하 요인이 생겨 가격경쟁력이 크게 개선
 - 부품 관세철폐로 부품수출도 확대되고, 현지생산비용도 절감될 전망
- 특히 미국 현지 생산차는 미국과 FTA를 맺은 주변국에 우선적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병행⁵⁾
 -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시장에 판매할 경우에는 FTA 체결로 인한 한국차의 수출확대 효과가 저감
- 반면, 한국 시장에서는 관세철폐 및 세제개편으로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이 최대 12.7%까지 인하될 수 있어, 중대형 차급의 경쟁이 심화
 - 미국산 일본차와 유럽차의 우회수입도 확대될 가능성

□ 중장기적으로 픽업트럭의 개발 및 세계 자동차산업의 ‘엔지니어링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는 전략이 요구

- 25%에 달하는 픽업트럭의 관세철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시장용 픽업트럭을 개발할 필요
 - 다만, 이미 일본업체들이 미국 현지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하고 있어 한국산 픽업트럭의 수출경쟁력 강화가 관건
- 관세인하와 수출증대에 따른 수익을 환경기술과 고급차 개발 및 판매망 확충 등에 활용하여 한국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
- 다른 나라에 앞서 EU, 일본, 중국 등과도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을 세계 자동차산업의 엔지니어링 허브로 육성
 - 선진국 대비 낮은 엔지니어링 비용과 중국 대비 높은 기술력을 활용

⁵⁾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한미 FTA 협상 결과 및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 『KARI CEO Report』, 2007.4.3. p11.

② 기계 : 미국기업의 부품 및 기자재 공급기지 역할

- 한국이 미국에 비해 개방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국내기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
 - 미국의 경우 일반기계 관련 품목 중 관세 즉시 철폐 품목이 82.1%인 반면, 한국은 38.3%에 불과
 - 품목별 유예기간 : 가스터빈 3년, 머시닝센터⁶⁾, 자동제어식 밸브, 볼 베어링 10년 등
- 한국은 범용기계와 부품에 특화된 반면, 미국은 전용기계에 특화되어 있어서 상호보완 가능성이 높은 편
 - 대미수출 품목 중 관세가 높고 일본과 경합을 벌이는 가공공작기계의 경우,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증가가 예상
 - 미국은 세계 2위의 가공공작기계 수입국으로 최근 4년간 국내기업의 대미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41.7%를 기록

일반기계산업의 주요 품목별 대미수출액과 관세율

(단위: 백만달러, %)

순위	품목	수출 금액(2006년)	평균 관세율
1	건설광산기계	643	0
2	섬유기계	479	1.1
3	가공공작기계	338	4.1
4	펌프·압축기	323	0.3
5	냉동건조기계	248	0.7

자료: 한국기계산업진흥협회 DB, 산업연구원

- 주요 대미수입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전자응용 가공기계, 터빈 등은 수입이 늘어날 전망
 - 그러나 대일수입 비중이 높아 수입선 대체나 상호간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경우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

⁶⁾ 금속절삭, 드릴링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대의 기계로 하는 공작 기계

□ 미국기업과 협력을 통해 환경, 에너지 등 차세대 기계장치의 부품공급 기지로 성장도 가능

- 현재 미국 기계산업의 경우 원천기술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으나 일본이나 독일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불리
 - 자동차산업 등의 부진으로 기계산업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상황
- 최근 한국기업의 기술력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어 미국기업과 부품이나 제품개발 부문에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할 가능성
 - 태웅, 현진소재 등은 GE 등 풍력발전 선도업체에 기자재를 공급하고, 평산은 세계 풍력발전용 타워플랜지⁷⁾ 시장의 30%를 점유할 정도

③ 섬유 : 가격경쟁력 회복 등을 계기로 재도약의 발판 마련

□ 섬유산업은 관세철폐, 원사기준(Yarn Forward)⁸⁾, 10년간 한시적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 등에 합의

- 한국은 즉시 철폐 및 3년 이내 철폐가 수입액 기준으로 85.4%
 - 미국은 즉시 철폐가 61.2%이고, 나머지 38.2%에 대해서는 각각 5년(18.6%)과 10년 이내(20.2%)에 단계적으로 철폐

한미 FTA의 섬유부문 관세 양허안

(단위: 백만달러, %)

	한국		미국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1,265 (97.6)	170 (72.0)	1,387 (86.8)	1,654 (61.2)
3년	7 (0.5)	32 (13.4)	- (-)	- (-)
5년	24 (1.9)	34 (14.6)	149 (9.3)	504 (18.6)
10년	- (-)	- (-)	62 (3.9)	548 (20.2)
계	1,296 (100)	236 (100)	1,598 (100)	2,706 (100)

자료: 외교통상부

⁷⁾ 풍력발전기의 기둥에 사용되는 강관과 강관을 연결하는 이음새

⁸⁾ 섬유 완제품 생산에 투입된 실(yarn)의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제도

- 원사기준 충족이 어렵거나 원사공급이 부족한 품목⁹⁾에 대해서는 원사 기준 예외 조항으로 합의
- 관세철폐 효과로 인해 한국의 섬유부문의 대미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
- 관세철폐만으로 약 1억 8천만달러의 대미수출의 증가가 예상
 - 또한 통관절차의 간소화에 필요한 품목분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판정제 도입 등으로 물류측면에서도 대미 수출환경이 개선
 - 미국산 섬유제품의 경우 차별화된 고가제품이 대부분이어서 국내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실제로 미국산 섬유수입 규모는 전체 섬유수입액의 3.5%(2.4억달러)로 극히 낮은 수준(2005년 기준)
 - 신소재부문의 기술유입이 확산되면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가능
- 섬유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미국과의 기술협력 등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
- '원사→직물→완제품'으로 연결되는 수직적 생산 네트워크와 '직물·염색→봉제→컨버터 업체'로 연결되는 수출지향형 수직계열화를 구축
 - 제품 차별화 및 물류흐름의 원활화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 발생
 - 우주·항공 등 신소재섬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M&A 등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
 - 미국 현지 로컬 유명 브랜드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등

⁹⁾ 한미 FTA에서 원사 공급부족에 관한 협정은 NAFTA형과 CAFTA형을 모두 적용. 전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지만 후자는 발효 후 5년으로서 한정(단 양국간 협의 하에 연장 가능). 또한 원사공급 부족 품목에 대해 합의할 때 전자는 양국합의 하에, 후자는 수입국의 결정에 따름.

④ 제약 : 바이오 오리지널의약품 개발의 계기로 활용

□ 의약품 특허권은 국제표준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타결

- 제네릭의약품(복제약) 업체가 품목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원개발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허가절차 정지를 위한 제도마련에 원칙적으로 합의
 - 미국 국내법은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30개월 자동정지를 명시
 - 이에 따라 한국도 국내 제약산업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행 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약속
- 식약청의 품목허가 절차로 인해 식품조사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기간만큼 특허기간을 연장
 - 국내 특허법에 이미 반영된 내용으로 한국도 이를 수용
- 오리지널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보호를 명문화

한미 FTA의 제약부문 관세 양허안

구분	즉시 철폐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한국	원료의약품(7.1%)	완제의약품(8.0%)	-	-
미국	완제의약품(무관세) 원료의약품(3.1%)	-	-	-

주: ()안의 수치는 현행 관세

자료: 보건복지부

□ 국내 제약산업은 생산성이 높은 제네릭의약품 업체를 중심으로 구조개편이 이루어질 전망

- 특허권 강화로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제네릭의약품 업체 중 일부는 도태될 가능성도 존재

-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큰 의약품만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선별등재' 방식의 시행 합의로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의약품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
- 제네릭의약품 상호인증을 국내 제약업체의 미국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제약산업이 국제 GMP 인증¹⁰⁾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
 - 국내업체가 생산한 제네릭의약품은 국제적으로 아직 제네릭의약품으로 인증 받지 못한 상태이나 국내 제네릭의약품을 미국이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
- 오리지널의약품(신약)의 경우, 기존의 화합물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에 매달리기보다는 틈새시장인 바이오 신약을 집중 공략¹¹⁾
- 국내의 수 많은 바이오테크기업을 활용하면 단기간에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미국 바이오제약업체의 M&A 등을 통해 시장 인지도 제고

⑤ 방송·통신 : 한국 통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 미국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지만, 현재의 개방 상태를 명문화·영구화할 필요
- 미국의 방송·통신 시장은 이미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된 상태
 - 무선통신 부문만 외국인 직접투자를 20%로 지분을 제한하고 있으나, 간접투자는 지분 제한이 없고 MVNO¹²⁾로 진출 가능

¹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¹¹⁾ 바이오신약 시장은 30년 정도 역사를 가진 신생시장으로 생체물질인 단백질, 호르몬, 유전자, 세포 등 그 자체를 약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총칭

¹²⁾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는 주파수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Mobile Network Operator: MNO)의 망을 임대해 독자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

- 한국 통신사업자(KT, SKT 제외)와 방송채널사업자(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제외)의 외국인 간접투자 지분제한이 폐지¹³⁾된 것 이외에는 양측 모두 실질적인 추가 개방이 없음
 - 다만, 방송에 적용되는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방송쿼터)과 ‘1개국 쿼터’를 부분적으로 완화
- 그러나 향후 미국이 한국에게 불리한 규제를 신설하지 않겠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안정적인 미국사업의 여건을 마련했다는 의의는 있음

□ 포화된 내수시장 때문에 성장동력이 둔화된 한국 통신기업입장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

- 미국 통신시장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
 - 미국은 세계 최대의 통신시장이며, 이동통신부문은 유럽 등 기타 선진국시장보다 고성장(2000~2004년 연평균 성장률 13.8%)
 - 한인 및 아시아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로컬사업자를 인수하거나 MVNO로 진출하는 것이 가능

미국 통신서비스시장의 규모 추이

(단위: 십억달러,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유선통신	172.3	167.0	155.9	145.5	136.5	-5.7
무선통신	56.9	68.5	76.5	85.2	95.5	13.8
전체	229.2	235.5	232.4	230.7	232.0	0.3

자료: FCC Study on Telephone Trend 2005

□ 3세대 이동통신과 IPTV¹⁴⁾ 등 선진 서비스 부문을 집중 공략

¹³⁾ 통신사업자는 협정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 방송채널사업자는 3년 이내에 간접투자 지분제한 폐지
¹⁴⁾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은 인터넷과 TV가 결합한 대표적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셋톱박스(set-top box)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에 연결된 TV로 방송은 물론 인터넷 검색, 영화감상, 홈쇼핑, 홈뱅킹 등 다양한 콘텐츠와 부가서비스를 제공. 한국은 2006년 말 시범서비스가 개시

- 한국은 초고속인터넷 및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보급에 있어 미국보다 앞서 있어 향후 대미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가능성
 - 특히 모바일와이맥스(와이브로)와 같은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 부문에서 양국 통신서비스 업체간 협력이 가능
 - 외국인 지분제한이 완화되면서 미국업체와 전략적으로 상호지분을 교환할 수 있는 여지도 확대

□ 장기적으로 방송사업자의 미국시장 진출도 가능

- 재미교포·아시아계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방송 콘텐츠를 판매
- 동시에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방송채널사업자를 통해 한국의 방송 콘텐츠를 미국에 역수출하는 계기로 활용

주요 업종별 기회 요인과 대응 방향

업종명	주요 영향	기회 요인	대응 방향
자동차	관세철폐	· 가격경쟁력을 통한 수출 제고 · 신제품 개발과 브랜드 제고	· 픽업 트럭, 환경기술 (하이브리드카), 고급 차종 개발 및 수출(I/O) · 브랜드 인지도 제고 전략 (O) · 엔지니어링허브 구축 (I)
기계	관세철폐	· 미국 기계산업은 원천기술 보유, 가격경쟁력 낮음	·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 M&A, 합작기업(Joint Venture) 설립 (O)
섬유	관세철폐	· 가격경쟁력을 통한 수출 제고 · 신소재부문 기술유입	· 섬유 산업 스트림간 수직적 협업체제 구축을 위한 구조조정 (I) ·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보유한 미국 기업 JV(I/O) 또는 M&A (O) · 유명 브랜드 M&A (O)
제약	특허권 강화	· 제네릭의약품 상호인증	· 국내 제약업체의 구조조정 (I) · 미국 바이오제약업체 M&A (O)
방송통신	미국시장의 추가개방은 없는 상황	· 한국 방송 콘텐츠 수출 ·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및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시장 진입 · IPTV 서비스시장 확대	· 한국에 진출한 미국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한국 방송 콘텐츠 수출 (I/O) · 미국 로컬 기업 인수 (O) · 가상이동통신사업자로 진출(O)

주: I(Inbound)는 국내 시장에서의 전략, O(Outbound)는 미국 시장 진출 전략

Ⅲ. 기업의 대응 : 새로운 글로벌 전략

1. 전략구조의 전환: '수세'에서 '공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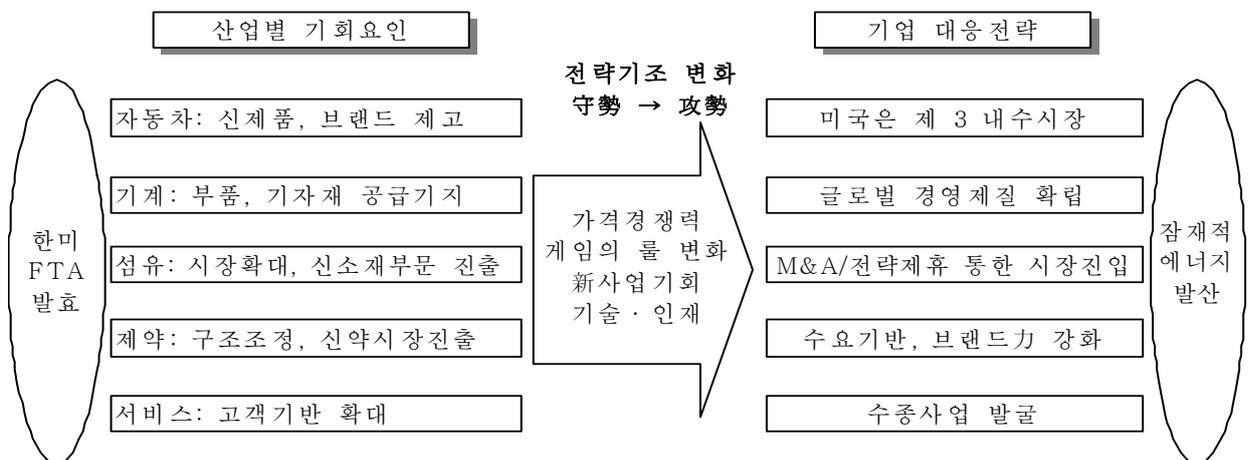
□ 한미 FTA를 이끌어 갈 실질적인 주역은 기업

- 한미 FTA로 나타날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적극적 자세로 한국기업의 잠재적 에너지를 최대한 발산
-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새로운 내수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BRICs 등 신흥시장도 중요하지만 미국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의 위상 확보

□ 중국·일본 등 주요경쟁국들보다 앞서 FTA라는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장기회를 선점

- 종래 선·후발자 사이의 ‘경쟁력 샌드위치(Nut Cracker)’에 놓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
 -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무역질서로 등장하고 있는 FTA체제에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체질을 글로벌화

한미 FTA와 기업의 대응방향



2. 5大 핵심전략

① 미국시장에 대한 재인식: 제3의 내수시장

□ 무역장벽이 사라진 미국시장은 한국, 중국에 이어 제3의 내수시장

- 21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한인사회와 한미 안보동맹이라는 토대 위에 FTA가 실현됨으로써 미국은 한국의 새로운 내수시장으로 부상
- 미국을 내수시장화 한다는 것은 제품시장에 국한된 중국과 달리 세계 최대의 지식시장(knowledge market)에 직접 접목된다는 의미
 - 미국은 군사, 외교, 경제, 기술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지식, 아이디어 등에서 세계의 중심이며 글로벌 표준의 제정자(standard setter)

□ 한미 FTA를 지렛대로 삼아 한미 양국은 물론 동북아 역내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비즈니스 센터’로 도약

- 현재 한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낸 국가¹⁵⁾로 향후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실시되면¹⁶⁾ 양국간 인적 교류가 비약적으로 활성화될 전망
 - 미국의 전문인 취업비자 쿼터(연간 6만 5천명) 중 한국에게 별도 배정을 위해 협의 중

미국 FTA 체결국의 취업비자 할당 쿼터

국가	비자쿼터(명)	FTA 발효 시점
캐나다	무제한	1994년 1월
멕시코	5,500	1994년 1월
칠레	1,400	2004년 1월
싱가포르	5,400	2004년 1월
호주	10,500	2005년 1월

자료: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

¹⁵⁾ 총 9만명으로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14.3%를 차지

¹⁶⁾ FTA 최종협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2~3년 내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음

- 인적교류가 확대되면 법률, 컨설팅,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서비스 등 ‘비즈니스 인프라’ 측면에서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도약이 가능
 -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가 ‘비즈니스 센터’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어 상용화가 앞당겨지게 됨
- “미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말처럼 미국시장에서의 승리는 한국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지름길
 - 미국시장에서의 생존은 한국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

필라(FILA)의 ‘미국시장 집중’ 전략

- ▷ 필라코리아는 탁월한 실적과 독특한 라이선싱 전략을 기반으로 이탈리아 필라 본사를 매입하고 미국시장을 미래의 성장거점으로 선정
 -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국가에 반영구적 라이선싱을 부여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세계 제1의 스포츠시장인 미국시장에 경영력을 집중하여 전세계 총 매출의 50%를 달성한다는 계획

② 글로벌 경영체질 확립

- 한미간 통상거래에 있어 게임의 룰이 되는 영미법 회계·경영 체계 및 관행을 숙지
 - 영미법 체계는 대륙법체계(규제중심)와는 달리 '상인의 법'으로 불릴 만큼 기업친화적이므로 법에 대한 무지로 기회상실의 우려 범하지 않도록 주의
 - 동시에 州法을 중시하는 미국과의 분쟁시 각 주법에 근거해 분쟁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州별 특성에 맞게 대응

- 국내적으로는 미국자본의 투자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장치와 같은 엄격한 회계규정(사베인스-옥슬리법)이 제기될 가능성
 - 글로벌 기업에 비해 역량이 취약한 해외 법무기능을 대폭 강화
- 새로운 무역질서의 전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경영 역량 확보
- NAFTA 등 기왕에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무역질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USA+ 1’¹⁷⁾ 등 유연한 지역전략 검토
 - FTA권역과 非FTA권역을 대상으로 다층화된 지역·국가전략 구사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등 보다 강화된 글로벌 스탠더드에 선제적으로 적응
- 윤리라운드(ER),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회책임투자(SRI) 등이 부각되면서 기업활동에서 윤리가 중요한 전략과제로 부상
 - 한미 FTA에서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의무를 제도 및 정책에 반영
- ③ M&A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장 진입: 신속 과감한 先占전략 구사
- 한국기업이 독점적으로 한미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5년에 불과
-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이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면 한국 기업의 상대적 이점은 자동 소멸
 - 미중 FTA가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지만, 미일 FTA는 5년 후에는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¹⁷⁾ 고인건비 등 미국시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국가의 자원을 활용

- 따라서 기업에 있어 향후 5년간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해 미국 시장에서 사업기반을 공고히 다져야 할 기간

□ 미국시장에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M&A, 조인트벤처 등 현지 경영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

- M&A시장이 발달된 미국에 진출하는 타국기업들은 대부분 그린필드형 진출보다는 M&A나 합작, 제휴방식의 진출을 선택
 - 국내기업도 글로벌 M&A 실패경험에 따른 좌절감에서 벗어나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새롭게 시도할 필요

M&A를 글로벌 성장전략으로 활용한 '세멕스'

- ▷ 세멕스는 현재 34개 국가에 71개의 공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 ▷ 멕시코의 시멘트 회사인 세멕스(Cemex)는 1976년 멕시코 1위 기업이 된 이래 1985년 정유 등 비주력사업을 매각하고 시멘트사업에 주력
- ▷ 1992년부터 스페인을 시작으로 코스타리카, 미국 등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모색하다가 NAFTA로 인한 환경개선, 미국 건설경기 호조 등을 발판으로 2000년에 미국 시멘트업체인 Southdown을 인수하여 미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 우선 관세·비관세 장벽철폐, 통관 간소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를 활용해 체력을 축적한 후 M&A 등을 진입전략으로 활용

- 1980~2005년 중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로 인한 한국기업의 피해규모가 373억달러(동기간 대미누적수출액의 6.7%)

④ 수요기반 및 브랜드力 강화

□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와 수요기반을 확대

- 섬유분야는 유력한 의류브랜드를 가진 기업을 인수하거나 제휴
- 통신서비스는 미국 고객층을 발굴해 국내시장의 성장 정체에 대처
 - NTT도코모는 꺾 · 사이판 이동통신 1위 업체인 꺾셀룰러와 4위 업체인 꺾와이어리스를 인수
 - KDDI(일본 제2위 이동통신업체)는 미 스프린트 넥스텔의 통신망을 빌려쓰는 MVNO사업을 개시

□ 신규 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등 미국내 판매거점도 강화

- 한미 FTA체결 후 미국내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요 기업들은 신규 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방침
 - 삼성전자는 미국 서북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가전 매장을 신설할 계획
 -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개선되는 섬유업체들도 판매거점 마련을 위해 신규투자를 확대할 예정

⑤ 수종사업의 발굴

□ 미래의 수종사업을 한미 FTA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

- 380개 대기업 중 40.3%가 미국시장 확보에 따른 신규사업 진출을 고려¹⁸⁾
- 특히 미래 수종사업의 경우, 다양한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엄격한 품질이 요구되는 미국시장을 테스트베드로 활용 가능

¹⁸⁾ 전경련, "한미 FTA 기업의견 조사", 2006.9.22.

산업별 수종사업(예)

	기존사업	수종사업
자동차	중·소형 자동차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
기계	공작기계, 건설장비	환경 및 에너지관련 기계
섬유	의류용 섬유소재, 범용 의류	산업용 섬유
제약	제네릭의약품	바이오 신약

□ 미국의 우수 기술과 인재 등 자원을 적극 활용해 미국의 원천기술을 습득하고 확보

- FTA 체결로 미국과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미국의 핵심·원천기술과 차세대 성장동력 등 신사업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
- 특히 제약분야는 후발주자의 진입이 가능하고 벤처 위주의 R&D가 활발한 바이오 신약 벤처기업의 인수를 통해서 신약개발능력을 확보
· 화합물 신약시장은 글로벌 기업 중심의 구도가 정착되어 진입하기가 어려운 실정
- 기계분야도 친환경 추세를 고려하여 유망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술제휴를 추진(CEO)

두산인프라코어의 CTI사 인수

- ▷ 두산인프라코어는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혼합압축천연가스(HCNG) 사용엔진의 원천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CTI사를 인수
- CTI사는 배기규제가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 주의 기준을 가장 경제적으로 만족시키는 엔진기술을 보유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4. 17	4. 18	4. 19	4. 20	4. 23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929.0	928.2	928.8	927.5	926.3
	엔/달러(뉴욕시장)	119.79	118.98	118.48	118.36	118.71
금리	회사채(3년AA-, %)	5.36	5.33	5.33	5.41	5.38
	국고채(3년, %)	4.97	4.94	4.94	5.02	4.99
주가지수(KOSPI, 종가)	1,528.7	1,534.6	1,513.7	1,533.1	1,544.4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5년	2006년	2006.11월	12월	2007. 1월	2월	3월
GDP성장률 ¹⁾	4.2	5.0	4.0
민간소비	3.6	4.2	3.7
설비투자	5.7	7.6	5.3
산업생산 증가율	6.3	10.1	7.1	3.0	7.5	-0.4	..
평균가동률	79.7	81.1	81.6	80.5	81.4	82.2	..
실업률	3.7	3.5	3.2	3.3	3.6	3.7	3.5
실업자(만명)	88.7	82.7	76.8	78.4	85.1	86.1	84.0
전국 어음부도율	0.04	0.02	0.03	0.03	0.02	0.02	0.01
소비자물가 상승률	2.8	2.2	2.1	2.1	1.7	2.2	2.2
수출(억달러, FOB) ²⁾	2,844.2	3,254.6	306.0	287.8	280.9	262.4	304.9
(증감률)	(12.0)	(14.4)	(18.5)	(12.3)	(20.8)	(10.3)	(13.6)
수입(억달러, CIF)	2,612.4	3,093.8	267.7	275.2	276.8	252.9	290.6
(증감률)	(16.4)	(18.4)	(12.2)	(13.8)	(19.9)	(7.6)	(12.0)
경상수지(억달러)	149.8	60.9	42.4	1.5	-4.3	4.9	..
외환보유액(억달러)	2,103.9	2,389.6	2,342.6	2,389.6	2,402.3	2,428.1	2,439.2
총대외지불부담 ³⁾ (억달러)	1,879	2,634	2,634

1) 한국은행 2007년 3월 21일자 '2006년 국민계정(잠정)'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산업자원부 수출입 동향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